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우크라이나는 지금

І голос Твій, Він крізь полум'я проводив І в темні дні Мій Господь,
Ти був поруч І я живу, бо Ти добрий Господь

«불 가운데서도, 어둠속에서도.. 내 곁에 계시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해 나는 살아갑니다.»

우크라이나 현지교회예배 중 울려 퍼지는 찬양 가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의 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침 일찍 건축자재를 사기 위해 대형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침 9시가 되니 스피커에서 우크라이나 애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직원들과 구매자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구하는 우크라이나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를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선하심으로 인해 전쟁이 종식되고, 고통과 슬픔의 땅이 은혜의 꽃으로 만발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나라로 다시 재건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 리비우 민간시설 폭격>

<하던 일을 멈추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역자 데니스 목사(폴란드선교사)소천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주변국을 다니며 피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가정을 도와준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중 폴란드에서 만난 데니스 목사는 저희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 있는 살롬장로교회(GMS 유럽대표 이창배선교사)에서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를 위한 ‘폴란드 선교사’로 파송된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교회를 세웠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로 피난한 수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저희는 폴란드에 있는 동안 그와 함께 카토비체의 살롬교회 예배를 섬기고 난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사서 나눠주는 일을 함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5월, 데니스목사는 심장마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밤낮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한걸음에 달려와 도왔던 그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긴 데니스 목사를 하늘 아버지 품에 보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의 태도가 저희의 삶의 태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울러 주께서 <폴란드 카토비체 우크라이나 교회>에 데니스 목사를 이어 우크라이나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를 세워주시길 함께 기도부탁드립니다.



<데니스 목사 사역 사진과 그의 아내>

<데니스 목사 장례식>

구호복음사역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갑니다. 유럽 연합국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한 지원금과 정책들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폴란드 카토비체 교회에서 GMS(총회세계선교회) 선교사들이 협력하여 매주 수요일 9-15시까지 난민복음구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생필품을 나누어 줍니다.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교회를 찾는 난민들은 1시간 30분 넘게 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 합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난민구호복음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르핀 제일교회는 매주 목요일 저녁 5-7시까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은 뒤 구호물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러시아가 점령·병합 지역에서 온 난민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 지역에서 온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통해,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전쟁난민들을 위로하며 함께 하는 감사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루마니아에서도 몰도바 복음 전도팀을 통해 제4차 어린이 복음 전도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통해,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전쟁난민들을 위로하며 함께 하는 감사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이르핀 제일교회 / 폴란드 카토비체 우크라이나 교회 / 루마니아 콘스탄차 구호복음사역>

‘교육선교와 선교적교회개혁’의 비전을 품고 공사를 시작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사기간동안 일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아껴서 그 재정으로 일꾼들 점심을 제공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가는 은혜를 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만, 허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누워있을 때조차도 너무 통증이 심해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가족없이 홀로 우크라이나에 지내고 있었기에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 되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파스를 붙여 주시고 음식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움직이지 못해 멈춰진 벽지 작업을 딸과 함께 도와 주셨습니다. 일꾼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저를 일으켜 병원과 약국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간 일꾼들도 제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라 믿고 기도하며 묵묵히 섬겨왔지만 이들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전쟁 중인 이 땅에서 있던 저에게 주께서 "넌 혼자가 아니야.. 나의 사랑이 너를 통해 이들에게 전해지고.. 나의 사랑이 이들을 통해 너에게 전해지는 것을 체험하지?" 라고 말씀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때이기에 모든 결정과 걸음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주시는 감동과 비전을 따라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고를 고쳐서 작은 카페를 만들고 1층 공간을 주중에는 교육의 공간으로, 주말에는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비용은 4천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공사비용의 반이상이 채워졌고 주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수많은 과정들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가정집을 개조해서 교육과 카페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건물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여러 행정처리(소방, 전기, 안전)가 잘 진행되도록, 모든 공사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금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진실하고 신실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선교적 삶을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예배팀, 교육선교팀, 카페운영팀, 교회사역팀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동역자들을 만나 겸손과 기쁨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공사하는 일꾼들 저녁 섬김 - 삼겹살 파티>

<공사에 동참하는 요시야와 지수>

<이웃의 돌봄>

온 가족이 우크라이나로

7월 25일, 폴란드에서의 피난생활을 정리하고 온가족이 함께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1000킬로미터를 운전해서 가는 길에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인해 앞차의 위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차가 빗길에 급

브레이크를 밟아 180도 회전하여 저희 차를 향해 미끄러져왔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미끄러져 온 앞차가 저희 바로 앞 몇 센티를 남겨두고 멈춰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매초의 은혜로 이어져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폴란드에서 출발한 후 약 10시간에 걸쳐 중간 도시(리비우)에서 숙박하고, 그 다음날 오후 8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이는 모든 상황이 열악하지만 가족 모두 함께 우크라이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 또 감사 드렸습니다.

앞으로 1년 비자연장, 아이들 학업(우크라이나 현지학교), 리모델링 공사 진행(현재 60%), 대한민국 외무부의 거주연장허가, 주거변경신청, 여러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러시아의 테러전쟁이 속히 끝나고, 고통받은 우크라이나를 위로하시며, 국제 정세와 경제와 안보와 물가 등에 안정을 허락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후, 부모의 부재로 방치되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필요들이 큼니다. 저희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도록, 지혜를 주셔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소서.
- (사역을 위한 기도)** '교육선교와 선교적교회개혁'을 위해 함께할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소서. (예배팀, 목양팀, 교육팀, 시설관리팀, 행정/회계/법무팀, 구제사역팀등..)
- (공사를 위한 기도)** '교육선교와 선교적교회개혁'을 위해 장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채워 주소서, 건물 용도 변경과 전기 용량 변경 등의 행정 절차와 감수가 잘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 (자녀를 위한 기도)** 김요시아, 김지수는 학업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자녀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아이들은 9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주께서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시고, 예비한 학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 (언어훈련)** 전쟁으로 인해 중단된 언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틈틈이 공부해 왔지만 집중력 있는 언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일들 감당해야 하는 중에 다시 언어공부를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집중력을 허락하소서.
- (영성을 위한 기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셔서 매순간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게 하소서.
- (열방을 위한 기도)** 대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터키, 식량재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대륙, 하와이 산불, 기후변화로 고통 중에 있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아들들과 교회를 통한 위로와 채움과 회복이 있게 하소서.